

'충경로' 걷고 싶은 명품거리 탈바꿈

전주시, 10월까지 충경로 도로환경 개선사업 마무리 계획

전주 시내 중심도로인 '충경로'가 도로 환경개선 공사를 마치고 오는 10월부터는 걷고 싶은 길로 제공된다. 전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총 184억 원을 투입해 추진해온 '충경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오는 10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충경로 도로 환경 개선사업은 병무청오거리부터 다가교사거리까지 걷고 싶은 길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도와 차도의 단차가 없는 광장 형태의 도로로 조성하고 있다. 또, 차도부는 콘크리트 블록 포장 등을 통해 이미지 개선 및 차열 효과를 높이고, 차량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50km에서 40km로 변경해 안전성도 확



전주 시내 중심도로인 '충경로'가 도로 환경개선 공사를 마치고 오는 10월부터는 걷고 싶은 길로 제공된다.

보했다. 여기에 충경로 특화 디자인 가로등 설치 등 노후화된 구도심의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김옥기 기자

시는 이달 말까지 인도 포장을 마무리하는 등 전반적인 도로 개선 작업을 완료한 후 오는 10월에는 기타 부대공사까지 끝내 시민들에게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충경로 도로 환경개선을 통해 △풍매지관(전주객사) △경기전 등 전주한옥마을 △전주객사길(객리단길) △고사동 영화의 거리 등 다양한 특화거리와의 연결 통로로 제공돼 관광객의 체류 시간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충경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충경로가 새롭게 탈바꿈하게 됐다"라며 "전주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는 명품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1인 여성 가구 위한 '셰어하우스' 운영

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활용 주거 안정·지역 정착 지원 도모

전주시가 위기 여성과 자립 준비 청년, 외국인 유학생 등 1인 여성 가구를 위한 주거플랫폼인 셰어하우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여성 1인 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셰어하우스를 공급·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LH 한국도지주택공사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셰어하우스)을 활용한 1인 여성 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LH로부터 주택 2호를 무상으로 공급받았다.

'주거플랫폼 셰어하우스'는 1인 1실, 총 8개 실로 구성되며, 각 실마다 에어컨과 화장실·세탁실이 구비돼 있다. 거실과 공부방은 공동으로 함께 사용하게 된다.

셰어하우스는 1인 여성 가구를 위한 중단지 임시거처로 활용되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 없이 관리비와 공과금만 내고 거주할 수 있다.

시는 홀로 생활하는 여성이 거주하는 시설인 만큼 △방범 안전 창 설치

△CCTV 설치 △자물쇠 교체 등 보안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중 공사를 마무리한 후 오는 10월부터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셰어하우스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주거플랫폼 셰어하우스 운영을 통해 민·관·공 협력체제로 지역의 위기 여성 등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전주시의회가 20일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위원장에 최주만 부의장, 부위원장에 이국을 의원을 비롯해 김성규, 김세혁, 김정명, 김현덕, 박혜숙, 송영진, 이기동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청문회에서는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로 추천된 이연상(65)씨에 대한 경영 능력과 자질, 전문성,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

최주만 위원장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체육, 장사, 주차 등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현실적인 경영 계획 등에 주안점을 두고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화재 속 이웃 구한 황준환 씨 의로운 시민상 수여

화재 사고 속에서 이웃의 목숨을 구한 한 전주시민이 '의로운 시민상'을 받게 됐다.

전주시는 화재 상황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소중한 이웃을 구한 황준환 씨에게 '의로운시민상'을 수여했다.

황씨는 지난달 27일 자정 무렵 전주 지역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시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인 60대 여성(중증 지체장애인)을 발견하고 인명을 구조했다.

황씨는 당시 일과 후 취침을 준비하



황씨는 화재 속 이웃을 구한 공로로 '의로운 시민상'을 수여받았다. /김재훈 기자

던 중 화재경보기가 울려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화재가 발생한 주택을 방범창을 통해 확인했으며, 아파트에 비치된 소화기를 가지고 즉각 화재주택에 뛰어들어 초기진화를 시도했다.

그는 초기진화 중 침대 밑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중증장애인(지체하지 가능 장애)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불로 둘러싸고 엮고 나와 구출에 성공했다.

황씨는 이웃을 구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한 것은 물론, 머리카락이 타고 얼굴이 붉게 그을리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황 씨는 입원 후 산소치료를 권유한 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소견에도 3시간 정도 호흡기만 착용한 후 집으로 돌아와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씨는 현재 (유)전일여객 소속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평소 투철한 봉사 정신과 사명감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데 앞장서 '2023년 하반기 전주시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재훈 기자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시행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시행

전주덕진소방서, 체계적 병원 이송 위해 도입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병원 이송을 위해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Pre-KTAS)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Pre-KTAS는 구급대원이 환자의 증상을 평가한 후 활력징후 및 1·2차 고령 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시스템이며, 체계적인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Pre-KTAS 도입으로 환자 중증도를 1~5단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이송·처치 중에 있다.

소생 1단계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생명이 위급한 상태(심정지, 무호흡, 무의식 등)이며, 긴급 2단계는 생명, 신체에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태(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이다.

이외에 응급 3단계는 경증의 호흡곤란, 출혈 동반 설사 등이고 비응급 4단계는 1~2시간 이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5단계는 감기, 장염 등 응급이 아닌 상태이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환자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구급대원은 119번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치료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 이송이 원칙이며, 환자·보호자가 원하는 특정 병원 또는 환자 진료 기록이 있는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봉화 전주덕진소방서장은 "Pre-KTAS를 적극 활용해 골든타임 내 응급환자가 최적의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요양병원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관내 요양병원(나눔요양병원, 중앙요양병원, 문실버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주방용 K급 소화기 보급 및 화재예방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거동이 불편한 피난약자가 다수 상주하는 요양병원내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해당 요양병원의 소방시설을 확인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안전관리 지도 △K급 소화기 보급 및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교육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 컨설팅 △자체 화재 예방활동 등 소방안전관리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경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요양병원은 많은 분이 입소하고 계신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화재 초기의 적절한 대응과 소방시설 정상 작동을 위해선 평소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